“2년만의 밤샘 영업 생각에 절로 힘이 납니다”

유흥주점·PC방 등 직원 뽑고 청소하고 손님맞이 채비

시민들 각종 모임 잡기 바쁜데 MZ 세대 “회식 늘까 걱정”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17일 오후 광주시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들이 청소와 방역작업을 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하다. /김진수 기자 jeans@

거리두기 해제…다시 일상으로

“밤샘 영업 준비에 절로 힘이 납니다.” “이사 2년 만에 집들이 날짜 잡았어요.”

정부가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사업장에 대한 운영 제한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첫 행정명령 이후 약 2년 1개월 만으로, 시민들은 늦춰왔던 가족·계 모임 생각에, 유흥주점·PC방 등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 기대감에 설레는 모습이다.

광주 첨단지구에 살다 1년 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로 이사한 직장인 김동철(41)씨 부부는 지난 주말 모임을 갖고 친구들과 집들이 날짜를 잡았다. 학교 동창 7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김씨가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완전해제 된대. 다음 주 주말에 우리집서 집들이 하자”고 올리자 친구 6명이 일제히 환호했다고 한다.

김씨는 “거리두기 때문에 부모님, 형제자매만 불러 간단히 집들이는 했다”며 “그런데 저와 아내가 정작 원하는 모임 친구 가족을 동반한 집들이는 열지 못했다. 7명 친구 내외와 자녀를 포함하면 20명이 넘어서 그동안 (방역당국) 몰래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룸살롱·단란주점·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심야식당, PC방, 만화방 업계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광주 최대 유흥시설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상무지구에서는 주말 사이 밤샘 영업을 대비해 준비가 한창이었다. 유흥시설과 심야 영업 식당이 밀집한 광주 상무지구에선 술병을 가득 실은 주류도매상 차량이 분주히 오갔다.

라마다플라다 광주호텔 뒤편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은 지난 16일 평소 영업시간보다 앞서 오후 5시께 업주와 직원들이 모두 나와 일제 소독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쓰지 않았던 룸을 모두 열고 청소에 열중했다.

업체 관계자는 “특별소비세 등 세금은 무겁게, 합법적으로 내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유독 유흥시설에 대한 당국의 영업제한 조치가 길고도 강했다. 유흥업계가 연대해 항의 시위를 열었을 정도였다”며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왔으니 앞으로는 별 탈 없이 돈 좀 벌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흥업계 다른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업체도 일부 문 닫았지만 종사자들도 상당수 떠난 게 사실”이라며 “업체마다 은퇴하거나 새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버린 여성 접객원과 주방 직원 등 빈자리를 메우려고 인력 구하기도 한창”이라고 전했다.

유흥업계 뿐 아니라 시내 PC방과 심야식당 등 24시간 영업 업소들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알바, 직원 등 사람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인해 울상을 짓는 이들도 있다.

기성세대와 달리 일과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하고, 단체활동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이른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되고 술집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던 것이,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무제한으로 단숨에 바뀌면서 팀 회식, 부서 회식, 회사 단합대회 등 회식 횟수가 늘고 회식 시간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한숨 섞인 걱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유연재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노인복지관도 ‘문 활짝’

3차 접종자 한정…식사 제공도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을 닫았던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 재개 대상 전남지역 경로당은 9179곳, 노인복지관은 28곳, 경로식당은 153곳이다.

이들 시설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면서 지난 2월 이후 폐쇄됐는데 2개월여만인 18일부터 문을 다시 연다.

경로당 등의 시설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이용자는 3차 접종자로 제한했다. 3차 미접종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칸막이·띄어 앉기 등 조치가 가능한 시설에만 제한적 식사와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만 허용된다.

3차 접종 여부는 회원제시설의 경우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접종증명서, 스티커 등으로 확인한다.

방역 청소 등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형편에 따라 운영 재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즉시 휴관 등 비상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애인 이동·치료…일상생활 어려움 여전”

‘장애인의 날’ 42돌 앞두고 광주 장애인 현실보니

저상버스 의무대수에 못 미쳐 병원 가고 싶어도 못가

‘장애인 10대 정책 요구안’ 광주시·시장 후보에 전달

‘장애인의 날’(4월 20일) 42돌을 앞두고도 광주·전남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과 치료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 장애인단체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광주 시내버스조차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현실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4월부터 올해 대·폐차 시기에 맞춰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올 연말이면 34%(광주 시내버스 999대 중 348대)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장애인단체 주장이다.

지난해 연말 교통약자법이 개정돼 2023년부터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에서 기존 차량을 대·폐차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권 및 각종 관련 서비스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거주 장애인 중 5.9%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못했다는 응답을 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10대 정책 요구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1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청까지 거리행진 후 광주시와 각 정당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애인 정책 의제화나 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영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한다”면서 “요구 사항에 관한 적극적인 수용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버스커즈 월드컵’ 1억 상금 주인공은?

광주 동구, 글로벌 오디션

광주시 동구가 올해 충장축제에서 우승 상금 1억원을 걸고 국내·외 버스커(거리공연자)들의 오디션인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19회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격상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로 세계 최대 버스커즈 경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세 이상 음악에 관심 있는 국내·외 버스커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버스커는 ▲발라드 ▲댄스 ▲랩, 힙합 ▲R&B, Soul ▲트로트 등 장르에 상관없이 5분 내외 기성곡 또는 창작곡으로 도전하면 된다.

참가 신청기간은 5월 2일~6월 7일이며, 공연 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버스커즈 월드컵 홈페이지(www.buskersworldcup.com)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연은 예선 1, 2차(6월 20일~7월 31일)는 온라인 심사로 본선 진출 120개 팀을 뽑는다. .

본선(10월 8일~10월 17일)은 5·18민주광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승에 진출할 ‘광주 버스커즈 뮤지션’ 16개 팀을 선정한다.

충장축제 마지막 날 공연을 펼쳐 최종 우승자가 결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허위출장비 타낸 광주 구청 간부 공무원들 중징계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광주 광산구 간부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산구 소속 5급인 A과장과 B동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A과장과 B동장은 출장명세를 허위로 보고해 각각 60만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확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